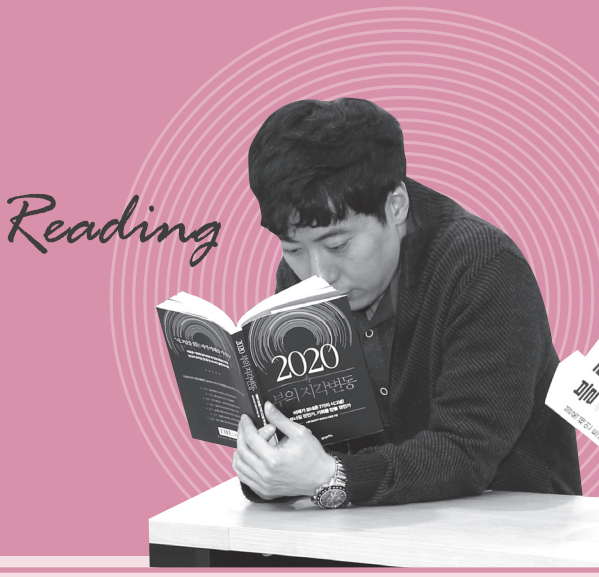

‘문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장 **현진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1, 2차 세계대전 등 물리적 전쟁이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경제전쟁보다 더 큰 충격을 주고 있고, 그 여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적 거리를 가급적 길게 두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다.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하는 활동은 책 읽기, 영화 및 음악 감상 등 예술 활동이다. 이들 활동은 대표적인 문화 생활 범주에 속한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강제적으로 집 안에서 문화 활동을 즐기게 됐다.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아마 문화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일 거다. 그래서인지 개인 교육을 할 때 문화를 강조한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많이 내세우는 목표도 ‘문화국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침과 열이 나지만, 문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차이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균으로 감염되지만, 문화 바이러스는 감동으로 감염된다는 점이다. 감동의 폭과 깊이에 따라 개인의 문화수준이 결정된다. 그래서 문화 바이러스를 가급적 많이 퍼뜨려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도록 해야 한다. 문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를 대폭 좁혀야 한다. 감동 체험을 통해 퍼진 문화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에 ‘문화 유전자’로 축적된다. 인간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유전자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유전자는 세대 간 이어지지만, 문화 유전자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어진다. 그래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화 바이러스도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인간은 한 가지 문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가능하면 더 많은 형태의 문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좋다. 인간의 삶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문화 바이

Book Concert

러스로는 인생의 폭과 깊이를 다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더 많은 문화 바이러스를 찾으러 다녀야 한다. 우리 몸에 다양한 문화 바이러스가 퍼지면 '문화 유전자'도 성숙한 수준으로 정착된다. 이런 문화 유전자는 자식 세대뿐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과의 교류에 의해서도 이전된다. 우리가 아리랑 노래를 들을 때 감동을 받는 이유도 이런 문화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몸에 문화 유전자가 축적되면 우리 국민은 문화국민이 된다.

국회도서관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 바이러스가 책이다. 양적으로 680만 종류의 문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저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접하는 개인이 누구냐에 따라 바이러스가 주는 감동의 수준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에겐 무감각한 종이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살아온 인생의 축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개개인 모두 우주만큼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우주만큼 소중한 존재다. 개인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 바이러스의 형태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개인이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은 새롭게 창작되는 문화 바이러스를 매년 7만 종 구입한다. 물론 그 비용은 모두 국민이 부담하며, 이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문화 바이러스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라는 전율을 통해 감염되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국회도서관의 존재가치가 더해진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감염된다. 그러나 문화 바이러스는 본인이 경험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감염될 수 없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이 아무리 많은 문화 바이러스를 보유해도, 개개인이 이를 찾지 않으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도서관은 매년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유명 작가와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고전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고, 재즈 음악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문화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기 위해서다. 책이라는 문화 바이러스가 갖는 한계점을 알고 있기에, 다른 형태의 문화 바이러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이다. 많은 개인이 문화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우리 사회의 문화수준이 높아진다. 문화국민은 개인의 문화수준이 높아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국민은 개인의 합이기 때문이다. 국회도서관은 개인이 문화인으로 성숙되게 하고, 우리 국민이 문화국민이 되도록 이끄는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